



배틀한 인생



블랙앤데커 이사 전영일

우리나라 사적 제10호가 서울성곽(城郭)인데 서울시 일원에 있는 조선시대의 석조성곽으로 둘레 약 17km나 된다. 전체면적 59만6,812㎡, 1396년(태조 5)에 축성된 것으로, 성벽은 백악(白嶽)·낙산(駱山)·남산(南山)·인왕산(仁王山)의 능선을 따라 축조되었다.

성에는 4대문(四大門), 즉 흥인지문(興仁之門 - 東), 돈의문(敦義門 - 西), 숭례문(崇禮門 - 南), 숙정문(肅靖門 - 北)과 사소문(四小門), 즉 홍화문(弘化門 - 北東), 광화문(光化門 - 南東), 창의문(彰義門 - 北西), 소덕문(昭德門 - 南西)을 냈다. 현재는 남대문(숭례문)과 동대문(흥인문)만이 원래의 위치에 남아있고, 성벽은 삼청동·성북동·장충동 등에 약간 남아있는 정도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의 서울 도성(都城)의 사방에 세운 성문이 사대문(四大門)이다. 정남(正南)의 숭례문, 정북(正北)의 숙정문, 정동(正東)의 흥인지문, 정서(正西)의 돈의문을 말한다.

언어에 있어서, 표준어(標準語)는 한나라의 표준이 되는 말로 대중말이다. 사투리나 속어가 아닌 그 나라 대표적인 말로서 공적인 곳에서 사용되는 규범적인 언어를 말한다. 보통 그 나라 수도의 교양있는 계층의 말을 토대로 다소 인공적인 세련을 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방언(方言)은 공통어나 표준어와는 다른 어떤 지역 특유의 단어나 언어적 용법이다. 보통 <사투리>라고 하나 이 말은 규범적인 면에서 볼 때 다소 비하(卑下)된 개념이므로, 보통 언어학 용어로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언어학적으로 방언이란 한 언어가 분지적(分枝的)으로 발달하여 지역적으로 다른 언어체계로 분화되었을 때, 그 체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즉 어떤 지방이나 계급층에만 국한되어 쓰이는 언어인데, 언어학에서는 한 나라의 언어에서 지역에 따라 발음·의미·어휘·어법 등이 표준말과 다른 언어체계를 말한다.



기술표준가족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영어와 독일어도 보다 큰 제르만 조어(祖語)에서 분화되어 분지하였으므로 방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언어와 방언은 본질적으로 구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언을 언어와 대립된 개념으로 쓰려면 각 방언 사용자들이 공통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이다. 그때의 언어를 방언이라고 한정시킬 수 있기는 하나 이 또한 객관적인 정의는 되지 못한다.

이와 유사하게 궁중어(宮中語)는 궁궐 안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쓰던 말로, 궁정어(宮廷語)라고도 한다. 궁중어는 고유어, 한자어, 차용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외부사회와 폐쇄되기 쉬운 궁중사회에서 옛말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그대로 사용되거나 일반과는 의미가 다르게 쓰이는 말이 있었다.

예를들면 <옛말>의 머리(머리), 밧집(민가), 대루리(다리미) 등이 있고 <뜻을 달리 쓰는 말> 로 아납꿍다(마음에 끌리지 않는다), 상(常)없다(버릇없다), 미안하다(서운하다) 등이 있다. 또 <한자어(漢字語)> 는 고유어의 한자로 표기하여 기별(寄別 : 官報), 조보(朝報 : 소식), 가지(茄子 : 가지), 나인(內人 : 궁녀) 등으로 썼고, 신체(身體)의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眼睛 : 눈), 구순(口脣 : 입술) 등의 말이 있었으며, 대변을 매화(梅花)라 하는 등 특수한 말이 있었다. 지금도 일반가정에서 흔히 쓰이는 조치는 국물이 비특하게 잘끓인 찌개나 찜 따위를 이른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의 말 곧 한국어인 우리말을 지꾸 써서 같고 닮아야 한다. 1937년에 최현배(崔鉉培)가 지은 문법서가 《우리말본》이다. 1929년에 간

행한 《우리말본 첫째 매소리갈 성음학(聲音學)》에 씨갈(品詞論 : accidence), 율갈(文章論 : syntax)을 추가하여 완성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어(韓國語)는 한국인이 일상 쓰는 언어이다. 계통상 알타이어족에 속한다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으며, 형태상 교착어(膠着語 : glutinous word)이다. 어순(語順)은 주어, 목적어 또는 보어, 술어의 순이며, 구어체에서는 주어가 흔히 생략된다. 문법적으로 성(性)이 없으며 단수와 복수의 개념도 엄격하지 않다.

어휘에 있어서는 논리적 어휘보다 감각어나 상징어가 발달되어 있고, 높임말과 낮춤말이 매우 분화되어 있다. 그리고 어른에 존대스러운 마음이 더 높은 어른앞에서는 줄어짐을 이르는 압존(壓尊)도 있다. 문자는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고 있으며, 고대로부터 한자를 차용해 온 관계로, 한자어가 총 어휘의 상당한 비율을 점하고 있다.

그러나 순 우리말도 많이 있다. < 인간은 생각을 할 줄 아는 동물이다 >, <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에서 생각과 외상은 순우리말이므로 한자로 적으려고 해서는 아니된다. 서울 사람이 쓰는 말은 소위 서울말이라 해서 표준어의 기초가 됨은 물론이다. 시골 사람이 서울사람을 제 욕심만 차림을 밋게 여겨 하는 말인 서울 각정이(stingy Seoulites)라는 말이 있지만 말이다.

그리고 서울 특유의 말이 좀 있는데, 그중에서 <배틀하다> 가 그 하나이다. 사전에는 배댓하고 감찰맞이 있다. 배틀하다가 큰말로 되어 있다. 부엌에서는 삼신메를 올릴 양으로 미역국 끓는 내가 배틀한 김을 마시시 뵙는다. 《朴種和 前夜》



다른 사전에서는, 이를 "배착지근하고 감칠맛이 있다(savoury)"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비릿하다와 비릿하다를 같은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비릿하다 배릿하다는 냄새나 맛이 조금 비린 듯하다. <비릿한 피냄새>, <콩이 덜 볶여서 비릿하다> 와 같이 쓰인다.

여하튼 요즈음 거리에 어떤 것은 무슨말이지도 모를 국적도 없는 외국어간판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말을 많이 사용하여 우리도 배틀한 인생이 되어야 하겠다.

